

합평·진도·신안 당뇨병 치료 잘하는 동네의원 없다

건보심평원 평가...만성질환 가까운 병원에서 지속 치료 효과 전남 22개 시·군 중 급성 뇌졸중 치료 5곳·심근경색 6곳뿐

광주·전남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은 415곳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합평, 진도, 신안에는 당뇨병을 잘 진료하는 동네의원이 한 군데도 없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동네의원 2만9238곳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고혈압·당뇨병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을 선정했다. 고혈압 4698곳, 당뇨병 2664곳, 둘 다 잘한 곳 1591곳이었다.

광주·전남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잘 진료하는 동네의원은 415곳이었다. 광주지역 전체 개설의원 896곳 중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기관은 130곳이며,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기관은 58곳으로 평가됐다. 이 중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를 모두 잘하는 기관은 28곳이다.

전남은 전체 개설의원 902곳 중 238곳은 고혈압을, 70곳은 당뇨병을, 53곳은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진료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히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관리가 소홀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급성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진료를 잘하는 병원은 환자가 분기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찾아오도록 관리하고 합병증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이 넓고,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 일부지역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진료 우수기관이 부족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합평·진도·신안에는 당뇨병 평가 우수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전남의 한 내과 전문의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형병원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전남은 위급한 급성질환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서도 미흡한 의료수준을 드러냈다. 급성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목포 3곳, 여수 3곳, 순천·영광·해남 각 1곳 등 총 9곳에 불과했다. 이 중 상위 등급인 1등급은 2곳뿐이었고, 2등급과 3등급 각 1곳, 나머지 5곳은 등급제외를 받았다.

급성심근경색은 더 심각했다. 목포·순천 각 2곳, 광양·나주·영광·해남 각 1곳 등 총 8곳의 의료기관 중 1등급은 없고 2등급 2곳, 4등급 1곳, 등급제외의 5곳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춤·노래... 시켜만 주세요” 10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진행된 조선대 홍보대사 선발대회. 남학생 지원자들은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학의 얼굴 남자도 할 수 있어요”

지역 대학 홍보대사 남학생 지원 급증...장학금·연수 혜택

10일 오전 9시 조선대 해오름관 홍보대사 선발현장. 옛된 얼굴의 남학생 8명이 출품이 심사위원들 앞에 섰다. 남학생들은 홍보대사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에 “인맥도 만들고 스펙 쌓는데도 도움될 것 같다”는 거침없이 답변하는가 하면,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뒀던 다하겠다”며 심사가 끝나면 떠나갈 듯 드라마 대사를 외치기도 했다. “끼와 재능을 보여달라”는 주문에는 여는 여성 참가자들처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악을 틀며 랙과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학 홍보대사가 되려는 남학생들이 늘고 있다. 전남대는 올 해 선발 예정인 홍보대사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남학생이 1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5명이던 지난해보다 3배가 늘어났다.

조선대의 최근 2년 간 남학생 지원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14년에는 73명의 지원자 중 33명(45%), 지난해는 전체 지원자(76명) 중 32명(42.1%)이 남학생이다. 올해도 25명이 남자 지원자였다. 호남대도 지난해 선발자 5명 중 3명이 남학생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장학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 학교 홍보 모델이나 학교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으로 남학생 지원자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홍보대사에 연간 2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호남대도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활동비, 봉사활동 포인트 등을 지급하며 홍보 활동을 맡기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5·18 왜곡 교과서 전량 폐기하라”

5월단체·사회단체·학계 선언문...교육부 상대 소송 검토

5월 단체·종교계·시민사회·학계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축소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국정)를 전량 회수에 폐기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참석자 일부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18 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는 10일 종교계·학계·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개정·보급된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서를 분석한 5·18 연구소는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는 5·18의 의미를 축소·왜곡하고 있어 어린 세대들에게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 재단 등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교

육부는 집필과 검인정과정에서 군사작전처럼 비밀리에 처리해 오류를 잡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현재의 교과서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518관련 부분이 올바르게 수정되지 않을 경우 집필과 발행을 책임진 교육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언에는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불교연합회, 원불교 광주교구, 천주교광주대교구, 호남사학회, 전남대 5·18 연구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5월 3단체, 5·18 기념재단이 참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9, 해질 18:37, 달출몰 08:11, 달몰림 21:12

아침 쌀쌀
서해안과 일부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 오겠다.

광주	차차맑아짐	-3/7	보성	맑음	-4/7
목포	차차맑아짐	-2/5	순천	맑음	-2/9
여수	맑음	-1/7	영광	차차맑아짐	-4/5
나주	차차맑아짐	-5/7	진도	차차맑아짐	-3/5
완도	맑음	-1/6	전주	맑음	-4/6
구례	맑음	-4/7	군산	맑음	-4/5
강진	차차맑아짐	-4/6	남원	맑음	-5/6
해남	차차맑아짐	-4/5	축산도	차차맑아짐	0/4
장성	차차맑아짐	-5/6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관심	식중독
보통	자외선
낮음	피부질환

		밀물	썰물
목포		03:42	08:53
		16:05	21:15
여수		10:48	04:24
		23:09	16:48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	☁	☁	☁	☁	☁	☁
-3/10	1/10	2/11	2/15	4/16	5/17	10/17

광주 60곳·전남 36곳 아파트단지 '회계 부실'

관리소장 운영비 횡령 등 외부감사 '부적합' 판정

광주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 전남 아파트 단지 7곳 중 1곳은 회계처리가 부실해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입주자대표회장 등 입주주민을 대신해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물들이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리 차단을 위해서 입주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했다.

회계감사를 받은 광주 아파트단지는 418개, 전남 아파트 단지는 276개이다. 감사 결과, 광주는 이 중 60개(20.6%)가, 전남은 36개(14%)가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8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는 서울(27.6%), 인천(26.9%), 세종(22.9%) 다음으로 부적합 비율이 높았다. 도 단위에서 전남은 강원(36.8%), 전북(34%), 충북(32.2%), 경기(21.4%), 충남(19.3%) 다음이다.

전국적으로는 감사대상 8319개 단지 중 1610개(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아파트단지의 주요 지적 사항은 현금 흐름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합,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목적 외 사용, 납세의무 미이행, 전기수요 사용료 과다징수액 미정산 등이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벌인 아파트 관리비 특별단속에서는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이 10년에 걸쳐 아파트 운영비 35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낙찰 대가로 공사업체 6곳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 모르게 4500만원을 인출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드러난 아파트 단지는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